

#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감추는 사실

## 일본 원전 오염수, 삼중수소만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삼중수소만 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삼중수소보다 더 위험하고 생물에도 농축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검증해야 합니다.



## 검증되지 않은 설비로 오염수를 처리한다고?

우리나라 정부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가 안전하게  
처리된다고 국민을 설득하지만 이에 대한 성능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핵종 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검증은 처리 전후의 상태비교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모두 도쿄전력이 제시한 자료뿐,  
자체 조사 자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도, 대한민국에도 없습니다.



## 방류보다 나은 대안이 있습니다

2018년 일본정부는 오염수 처리에 대한 5가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해양방출’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안	비용
지층 주입	6조 2000억
지하 매설	2조 5330억
수소 방출	1조
수증기 방출	3000억
<b>해양 방출</b>	<b>340억</b>

# 정부는 왜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홍보하는가?

## 해양투기를 옹호하는데 세금쓰는 대한민국 정부, 이제 그만!!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세금을 써야 합니다.  
일본의 해양투기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세금쓰는 정부, 이제 국민을 보호하세요!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도 세금입니다!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는 도정·군정 홍보지, 이것도 세금입니다.

## 이제 쓰레기는 바다에 버려도 되나요?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이미 방사성물질 축적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바다로, 대기로 알게 모르게 배출하는 방사성폐기물 때문입니다.  
이번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다른 나라들도 기준치 이하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방사성 폐기물을 버릴 것입니다.



## 우리의 참여가 정부를 움직이고, 해양투기를 막을수 있습니다.

1.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2.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인증샷 등을 SNS에 올리고 가족, 지인과 함께해주세요.
3. 군의회, 도의회, 국회에 해양투기 저지를 요구하세요. (문자보내기 등)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